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숙의조사’ 고민

선관위 “시민참여자 안심번호 사용 불가”…市 “시민단체 뜻 존중” 속 조사방식 찾기 나서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건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 방식을 이르면 8월 초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 지하철에 비해 땅을 얇게 파 철로를 매설하는 저심도 방식을 반대해 온 일부 시민단체 요구인 ‘숙의조사’를 채택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광주시는 3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규정상 선거조사에만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지난 16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안으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이는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시민 250명을 선정, 5~6개월의 학습과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숙의조사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 방식이었다.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250명의 시민을 선정하려면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1차로 2만여명 이상의 안심 번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신고리 5, 6호기는 국민적 관심사여서 안심 번호 사용이 가능했지만, 광주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안심 번호 사용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는 안심 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대표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단체의 뜻을 존중하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론조사 방식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하는 등 안심 번호를 받지 않고도 숙의조사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시민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면서 “안심번호를 사용하지 못해 숙의조사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숙의조사 대신 광주시가 제시할 다른 공론화 방식을 이들 시민단체가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관계자는 3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자

신들이 요구한 숙의조사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처럼 논란을 빚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 방식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휴가가 끝나는 8월 2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지난 16년 동안 논의해온 것으로, 공론과 합의의 틀을 잘 조화시켜서 조기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광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저심도 방식의 2호선 건설에 반대하며,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 또는 노면전차(Tram)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이들 방안 역시 국비 확보가 어렵거나 광주 도로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 등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해남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전남도는 해남에 전북·김자반 등 수산식품 연구·가공·판매하는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비 7억5000만 원을 포함해 3년간 총 15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1차년도인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김자반 등 가공시설, 급속동결 건조시설 및 냉동시설, 연구 및 홍보·체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전남도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으로 전북·김자반 등 해남지역 특산품의 군납, 수출 등 유통체계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여가 및 가공업체의 안정적 원물 공급처 확보와 일시 대량 어획 등을 방지하고, 상품화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목포 등 10개 시·군 25개소에 260억 원을 들여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사업 지원, 냉동·냉장시설 139개소 59억 원, HACCP인증 시설 4개소 13억 원 등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와 위생적 처리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전북·김·미역·다시마·참조개·젓새우 등 전국 비교우위에 있는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생산 기반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생산여가의 소득 증대와 안전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도의회 ‘선심성 예산 논란’ 재량사업비 공개키로

전남도의회가 선심성 예산 비판을 받은 재량사업비(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공개하기로 했다.

30일 정의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당 소속 이보라미 의원(영암 2선거구)과 최현주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과 서동욱 운영위원장을 만나 재량사업비 투명성 확보방안을 합의했다. 면담 결과, 재량사업비 사업 내용과 예산의 홈페이지 공개, 2000만원 이하 사업의 해당 시·군 공개입찰 등에 합의했다. 또 집행 과정에서 도의원의 개입 금지도 약속했다.

전남도의회원의 재량사업비는 올 본예산에 1인당 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어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원씩을 추가 편성키로 해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보라미 의원은 “정의당은 재량사업비를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폐지를 주장했으나 면담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등을 통해 전남도민이 예산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취임식 생략 공식 업무

박병호(사진) 전남도 신임 행정부지사가 30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박 부지사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미래 모습이 달라지는 전환기에 있다”면서 “소통하는 행정”, “행정의 전문성”,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강조했다.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진 박 부지사는 광주 인성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첫 발을 내디

뒀다.

총무처와 대통령비서실을 거쳐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관,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다.

/최권일 기자 c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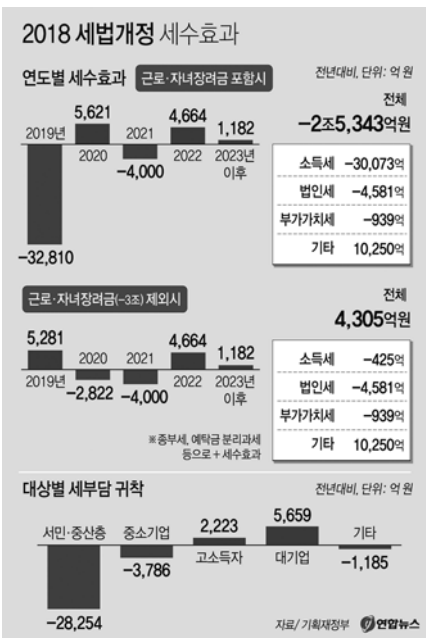
조세지출 5년간 15조원 늘려 빈부 격차 줄인다

근로·자녀장려금 3배 확대…10년만에 세수 감소 부자 증세 유지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서민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부자증세’ 기조는 유지된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뒤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200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올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m²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40m² 이하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로 인해 과세인원은 24만 명, 세수는 74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는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m²(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m², 건물 998m²(임대 741m², 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7억 ◆
(조정가)

인 하 건 설 (주)

010-3605-0214
062) 655-4840

하나님 나라 일군을 양성하는 GCDS 광주국제기독교스쿨

2학기 신입생 모집

LEVEL	05	04	03	02	01
고등	3학년, 국제반 3단계	2학년, 국제반 2단계	중등 3학년, 고1 국제반 1단계	중등 1·2학년 기본 교육과정	초등 5,6학년 중등 예비과정

English Summer Camp

일시 : 2018. 8. 6~10
장소 : 광주국제기독교스쿨

광주국제기독교스쿨은

1. 성경적인 영성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성,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도록 양육합니다.
2.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탄탄한 영어교육을 실시합니다.
3. 주요 과목을 알차게 교육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영성, 영어, 자질을 훈련합니다.

광주국제기독교스쿨

상담 문의 ☎ 061-381-0000 / 1365
010-9960-0091 (행정실장)
http://mygcds.com

전남 담양군 무정면 종리동길 42-34(성도리 산72)